

“즉시 대출” 문자 알고보니 신종사기

“수수료 먼저 송금하라” 속여 돈만 끌껴

동부경찰, 2000만원 쫓긴 20대 붙잡아

최근 목돈을 대출해주겠다고 휴대폰 문자를 보낸 후 수수료만 쫓기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에 사는 조모(37)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께 대출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캐피탈, 최소 5000만원 당일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가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음식점 주인인 조씨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김모(25)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뒤 “1500만원을 대출해 달

라”고 부탁했다.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신용기록 조회를 해보니, 2000만원까지 현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조씨를 안심시킨 뒤 “대출보증서 발급 비용 수수료가 필요하다. 150만원을 송금하라”고 김씨에게 말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조씨는 해당 계좌번호로 150만원을 입금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씨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데, 대출금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대출보증서 발급 비용 수수료만 더 주면 된다”고 조씨를 꼬드겼다.

김씨에게 속아넘어간 조씨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11회에 걸쳐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30분 내로 송금해 준다는 김씨의 말과는 달리 빌려려고 했던 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조씨는 “처음 보낸 대출보증서 발급 비용 수수료 70만원이 아까워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송금했는데,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됐다”

고객님은 월21만원으로 3000만원 사용가능합니다. 상담만 받아보세요 길을 주(무료상담)

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부경찰은 조씨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14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갠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임 것으로 보고 다른 가담자들을 쫓고 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생활정보나 스펀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받자해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는 납치 상황을 가장하거나 우체국·경찰청을 사칭하는 수법에 이어 신종 사기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대출 전 수수료 입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대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이달 하순께 큰 비 온다

광주·전남 주말 비

9월 하순 광주·전남은 기온의 변화가 크고,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이 14일 발표한 ‘1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9월 하순 전반에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쌀쌀하고, 후반부터 차츰 따뜻해질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량은 평년(31~46mm)보다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한편, 주말인 오는 17일부터 광주와 전남·북에 비가 시작돼 다음주 초반까지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김희기자 kimho@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5분 해질 18시 41분 달맞이 19시 47분 달뜨기 08시 40분

큰 기온차 ‘갇기조심’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광주	구름조금	22/32℃	목포	구름조금	21/28℃
여수	구름조금	23/30℃	나주	구름조금	22/32℃
완도	구름조금	20/31℃	구례	구름조금	21/32℃
강진	구름조금	21/31℃	해남	구름조금	19/31℃
장흥	구름조금	19/32℃	순천	구름조금	22/32℃
영광	구름조금	21/31℃	진도	구름조금	20/32℃
전주	구름조금	22/32℃	군산	맑음	21/29℃
남원	구름조금	21/32℃	남원	맑음	21/32℃
홍산도	맑음	20/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0.5~1.5m 높음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1.0~2.0m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0.5~1.5m 목욕 03:34 15:59 08:46 21:0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1.0~2.0m 여수 10:24 22:28 04:06 16:20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2/32	22/29	22/26	21/25	20/25	20/25

‘펜팔사이트’ 송금사기도 급증

금감원, 110건 피해 접수... 통관료 구실 돈 뜯어내

인터넷 펜팔사이트를 통해 국내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수법의 사기에 당했다는 신고가 지금까지 110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17만달러에 달해 경찰에 국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제 범죄조직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들은 펜팔사이트에서 결혼이나 이성교제 등을 구실로 접근, 친분을 쌓은 뒤 선물을 보냈다가 속여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외국 운송회사를 사칭해 물품 보관료 등이 필요하다고 돌려대거

나 세관에 압류된 물건을 찾으러다 붙잡혀 석방 자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받기도 했다.

범죄에 악용되는 ‘KoreanCupid’, ‘Tagged’, ‘Interpals’, ‘Netlogs’ 등의 펜팔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등에 사기조직과 관련된 수취인에 대한 송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기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요청을 받으면 금감원의 불법이환 신고센터(02-3145-7944)나 경찰청(02-700-630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14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8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사죄와 피해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 원산지 위반

식당 등 무더기 적발

추석을 앞두고 벌인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내 선물, 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

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7곳에 대해서는 모두 1238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8곳에 대해서는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품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총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www.oknwood.com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털)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도보드
-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염, 필름합판, 문짝, 문딩
- 판매품목
 - 장동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욕구기 · 독서대 · 책상(의자 · 책꽂이)
 - 침대 · 샵롱 · 편백건강베개(편백사잇+결명자사잇) · 편백나무베개 · 편백가습기 수백

편백나무 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정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